

통인동 스튜디오하우스 TONG-IN STUDIO HOUSE

유주현 | Yu, Jooheon

유주현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조소과와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건축사사무소 아틀리에17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2010년에 자신의 사무소를 열었다. 현재 자그 페리에 아키텍처의 한국 파트너기도 하다. 작품으로 판교동 522 주택, 통인동 스튜디오 하우스, 운중동 103810 주택 등이 있다. 2004년 김태수장학제와 2011년 장프르베-김중업장학제의 수상자로 선정된바 있다.

Yu, Jooheon, born 1976 in Seoul, received his Bachelor of Architec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received Bachelor of Sculpture Art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orked at Atelier 17 and has run his own office since 2010. He is also a Korea partner of Jacques Ferrier Architecture. He was selected as the winner of the 13th T.S.Kim Architectural Fellowship Foundation 2004 and the winner of Jean Prouve Scholarship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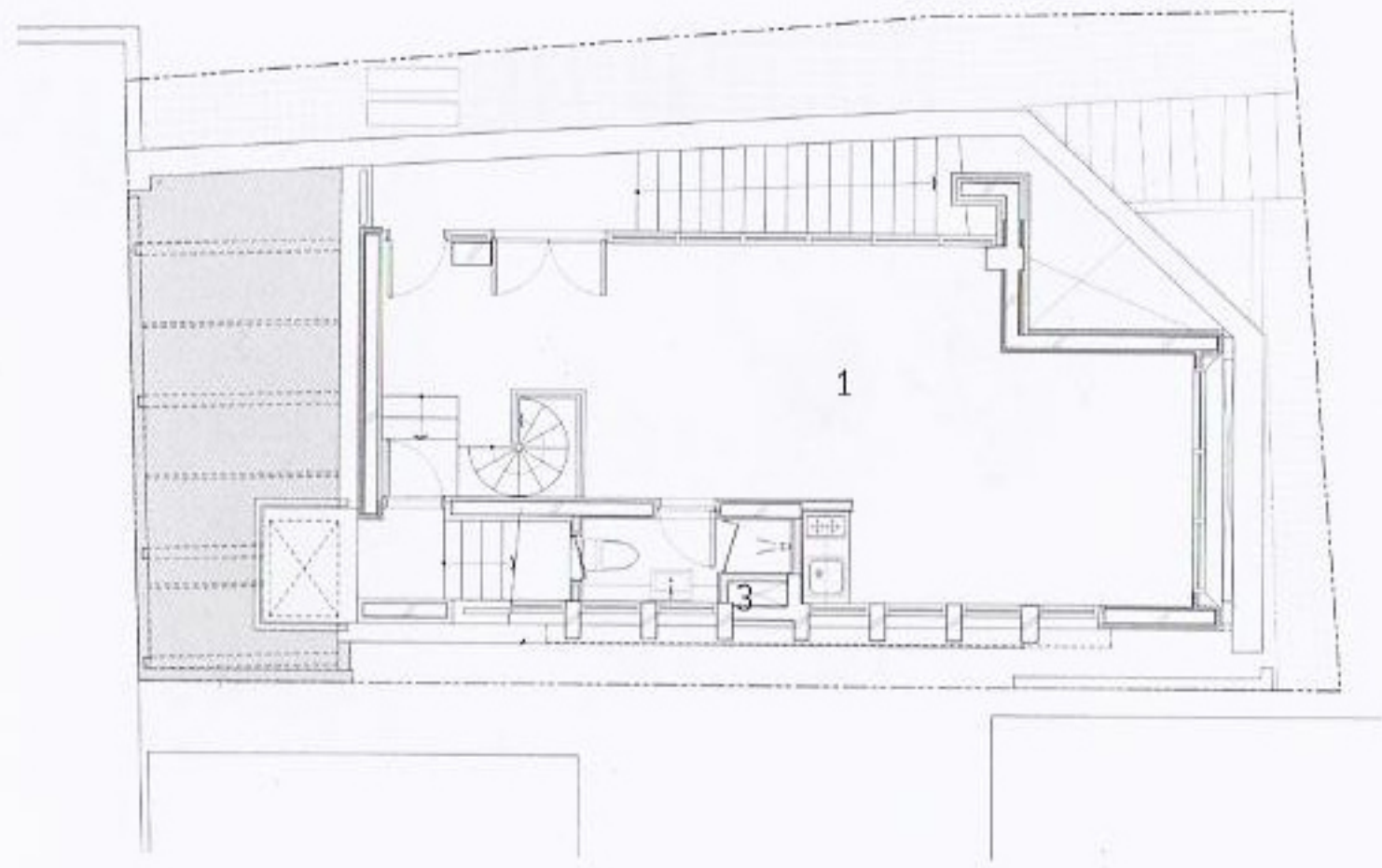
설계: 유주현(유주현건축사무소) **위치:**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89-7 **용도:** 주택, 스튜디오 **대지면적:** 132.2㎡ **연면적:** 209.019㎡ **건축면적:** 63.033㎡ **용적률:** 198.36% **건폐율:** 59.82% **건물규모:** 5F **구조:** RCm **외부마감:** 벽돌, 스타코-플렉스, 에코-틸 **내부마감:** 바닥-오크목, 에폭시, 현무암 / 벽-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 천장-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노출콘크리트 **구조설계:** 모아구조 **기계설계:** 타임테크 **전기설계:** 신한전설 **시공:** 문인호 **감리:** 유주현건축사무소 **설계기간:** 2010.7~2011.12 **공사기간:** 2011.3~2011.10 **공사비:** 500,000,000원 **건축주:** 안경하

자료제공 유주현 | 사진 문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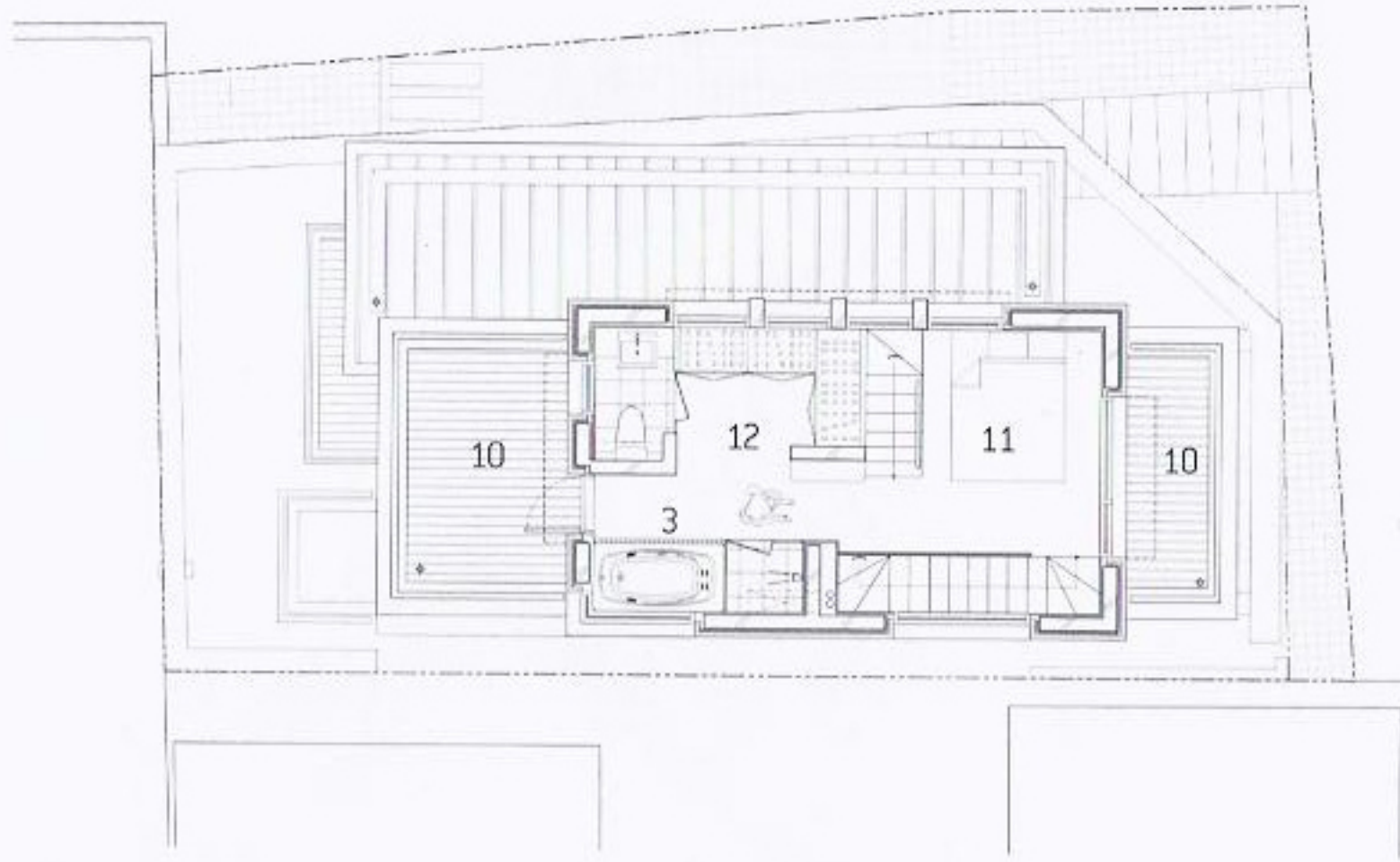
Architect: Yu, Jooheon [jhyana] **Location:** 89-7 Tongin-dong, Jongro-gu, Seoul, Korea **Programme:** Residence, Studio **Site area:** 132.2㎡ **Building area:** 63.033㎡ **Gross floor area:** 209.019㎡ **Building to land ratio:** 59.82% **Floor area ratio:** 198.36% **Building scope:** 5F **Structure:** RC **Exterior finishing:** Brick, Staco-plex, Eco-teel **Interior finishing:** Floor - Oak wood floor, Epoxy lining, THK30 Basalt / Wall - Water paint on gypsum board / Ceiling - Water paint on gypsum board, Exposed concrete **Structural engineer:** Moaeng **Mechanical engineer:** Timetech **Electric engineer:** Shinhanele **Construction:** Moon, Inho **Supervision:** jhyana **Design period:** Jul. 201 - Dec. 2011 **Construction period:** Mar. 2011 - Oct. 2011 **Cost:** 500,000,000 KRW **Client:** Ahn, Keyngha

Material provided by **Yu, Jooheon** | Photograph by **Moon, Jeong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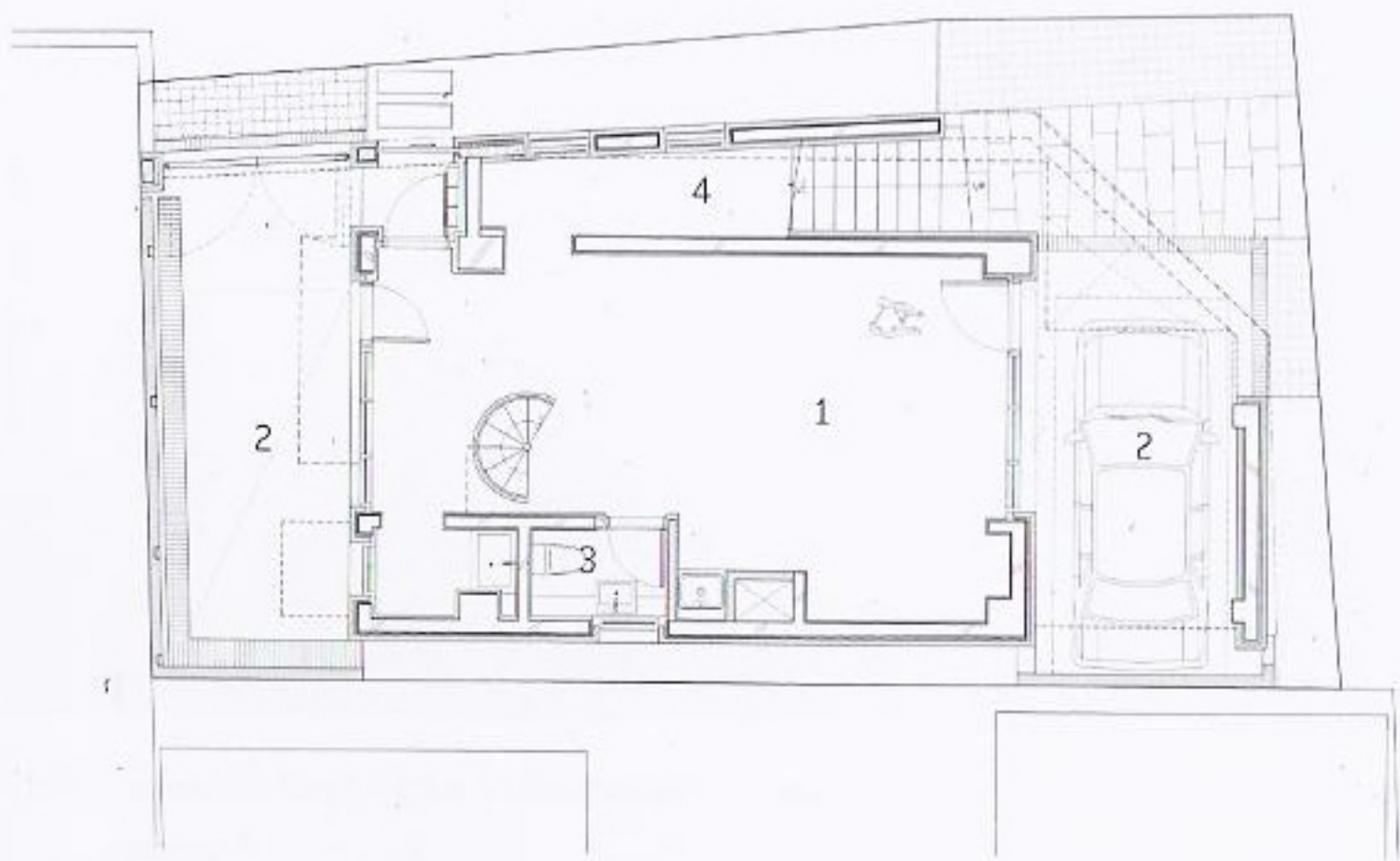


2F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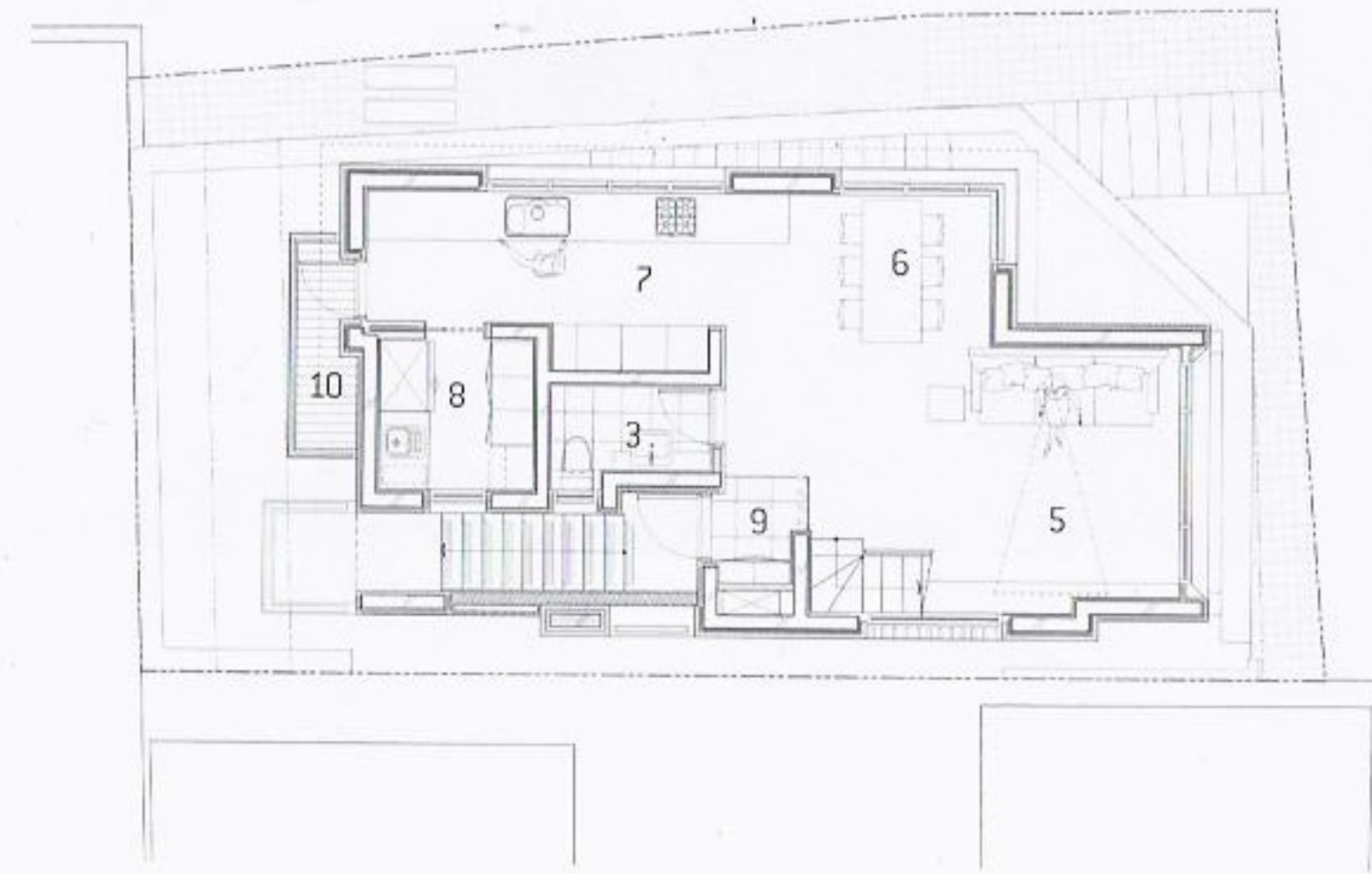


4F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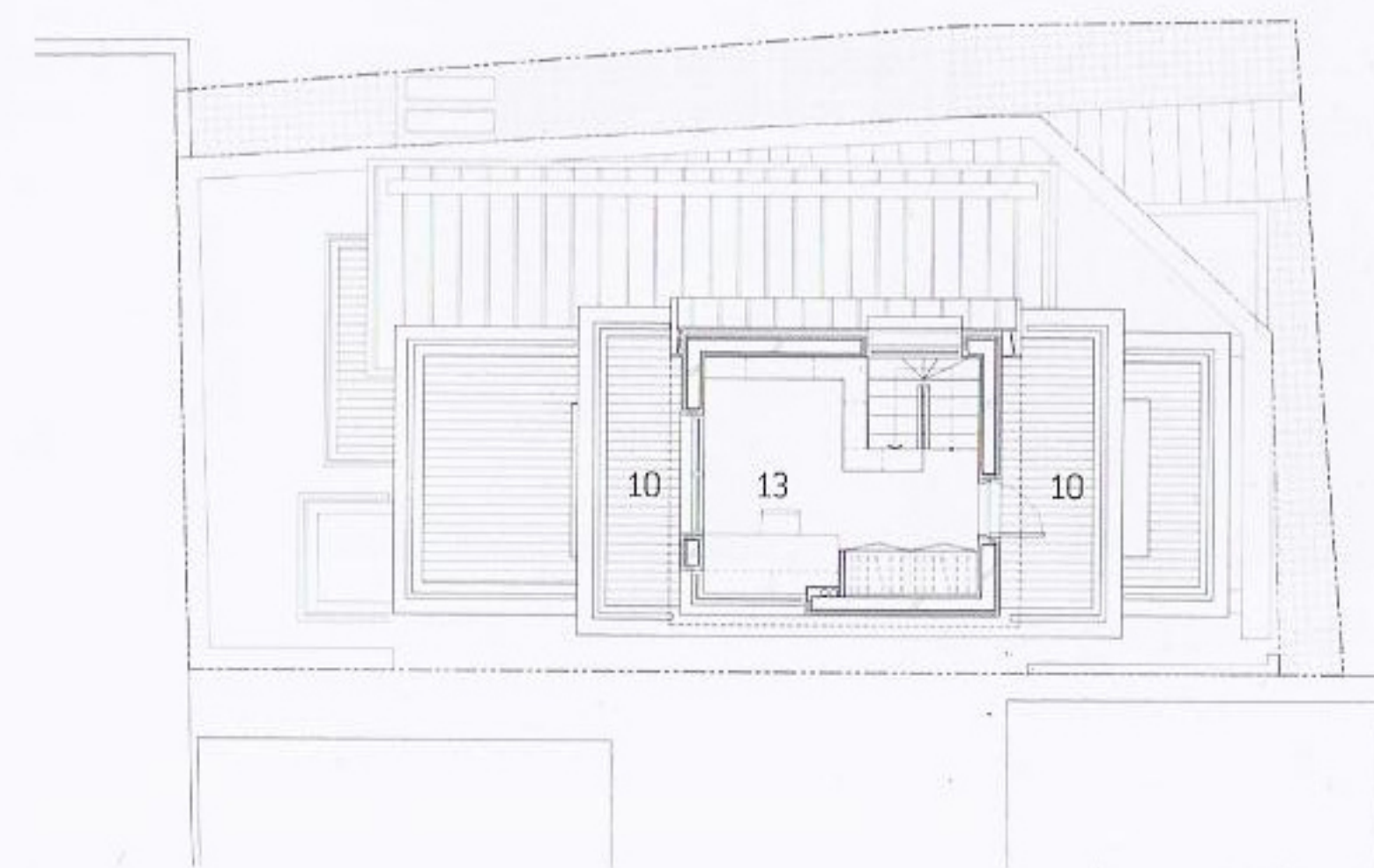
1. studio
2. parking
3. bath room
4. exhibition room
5. living room
6. dining room
7. kitchen
8. utility room
9. entrance
10. balcony
11. bedroom
12. dressing room
13. library



1F plan



3F plan



5F plan

0 2 4m

현실친화적 건축

An Architecture Based on Reality

이정훈(조호건축 소장)

Lee, Jeonghoon (Principal, Joho Architecture)

지난해 이맘때쯤이다. “사무소 공유합시다. 회의실도 널찍하게 쓰고 임대료도 절약하고.” 건축가 유주현이 「공간」 젊은 건축가 연재 기사를 보고 전화했다며, 이런 제안을 했다. 그때 나는 귀국 후 1인 사무소를 시작해 냉엄한 건축 현실에 고전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남동 어느 지하 우동집에서 처음 만났다. 한국적 현실 덕분에 우리는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려운 경험을 스스럼없이 말하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에게 건축은 삶의 본질처럼 숙명으로 다가온다. 꼭 겪어야 하는 성장통의 과정에서 때로는 잔인하지만 아름다운 경험을 배운다. 결국 사무소 공간을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그와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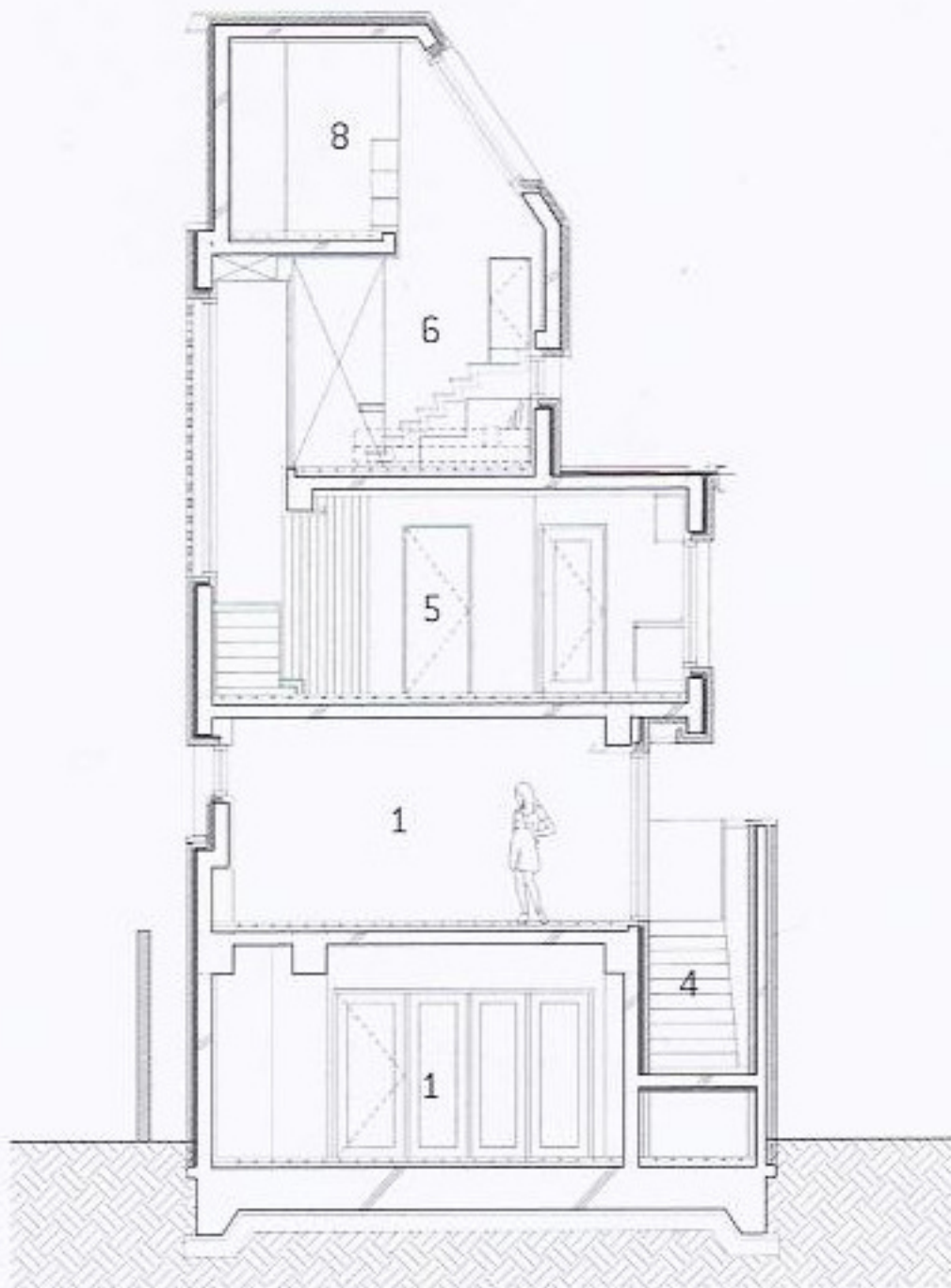
그는 자신의 건축을 “브랜드화를 거부했기에 이루어진 건축”이라고 설명한다. 건축가가 의도한 형태 어휘보다는 건축의 본질적인 기능에서 그의 건축이 시작한다는 의미다. 9개월의 설계 기간이 말해주듯 통인동 스튜디오 하우스의 작업 과정은 섬세하고 치밀하다. 그가 건축 시작점을 건축가가 의도한 공간적 욕망이 아닌 사용자의 공간 만족도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건축적 아심을 유보하고 건축주와 호흡하며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즐길 줄 아는 건축가다. 그것은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며, 상대방의 인생을 이해하려는 배려에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집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이 빛나는 건축이다. 시간의 흐름이 스며든 듯 이곳에는 한치의 공간적 낭비가 보이지 않는다. 볼륨은 철저히 용적률의 최대치로 분할했고 건축주가 요구한 공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반영했다. 통인동 뒷골목의 지정학적 컨텍스트는 갈래갈래 재배치한 동선을 따라 수직적으로 팽창하고, 사선 제한 때문에 남겨진 자투리 공간을 남김없이 테라스 공간으로 채웠다.

서너 평 남짓 하는 최상층의 서재 공간에서 바라본 인왕산은 건축가의 노고를 짐작할 만한 전망이다. 이러한 열린 시선의 배열 작업은 작업실과 주거 영역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극대화되었다. 물론 법규가 정한 볼륨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쉽게 결정한 과정일 수 있지만, 조각가인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가는 오랜 인내의 시간을 보낸 듯하다. 또한 조소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장 공간을 도심 내에서 필연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차장과 연결했다. 즉 주차 공간을 하나로 배치하지 않고 남북으로 분할 배치해 주차 대수 변화에 따라 북쪽의 공간을 작업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가 건축주를 배려해 공간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통인동 스튜디오는 모든 면에서 세심한 건축이다. 도심 내 소형 필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절한 용적에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의 농익은 마감과 능숙한 공간 처리가 아쉽다.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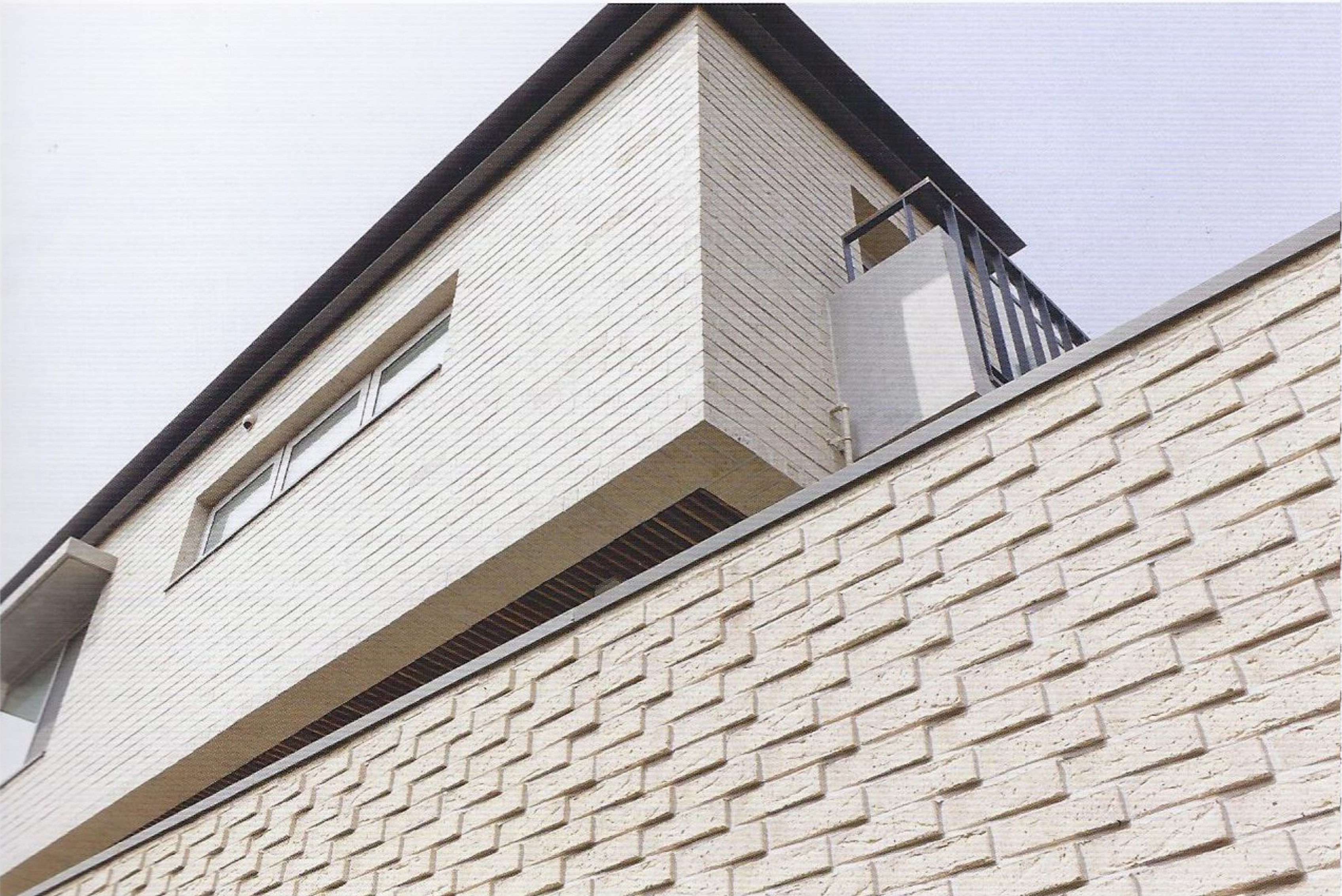
취향 문제일 수 있지만 조금 낯것이어서 거칠고, 그래서 그만의 공간적 화두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곳에 지극히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 대신 약간 불편하고 불합리한 기형을 배치했다면 어떤 결과를 도출했을까? 통인동 대지를 내부 기능으로 조합한 논리적 형태로 해석하지 않고 좀 더 이형적인 담론을 생성했다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의미를 파생시키지 않았을까.



The building gradually reduces floor area from the third to the fifth levels by installing terr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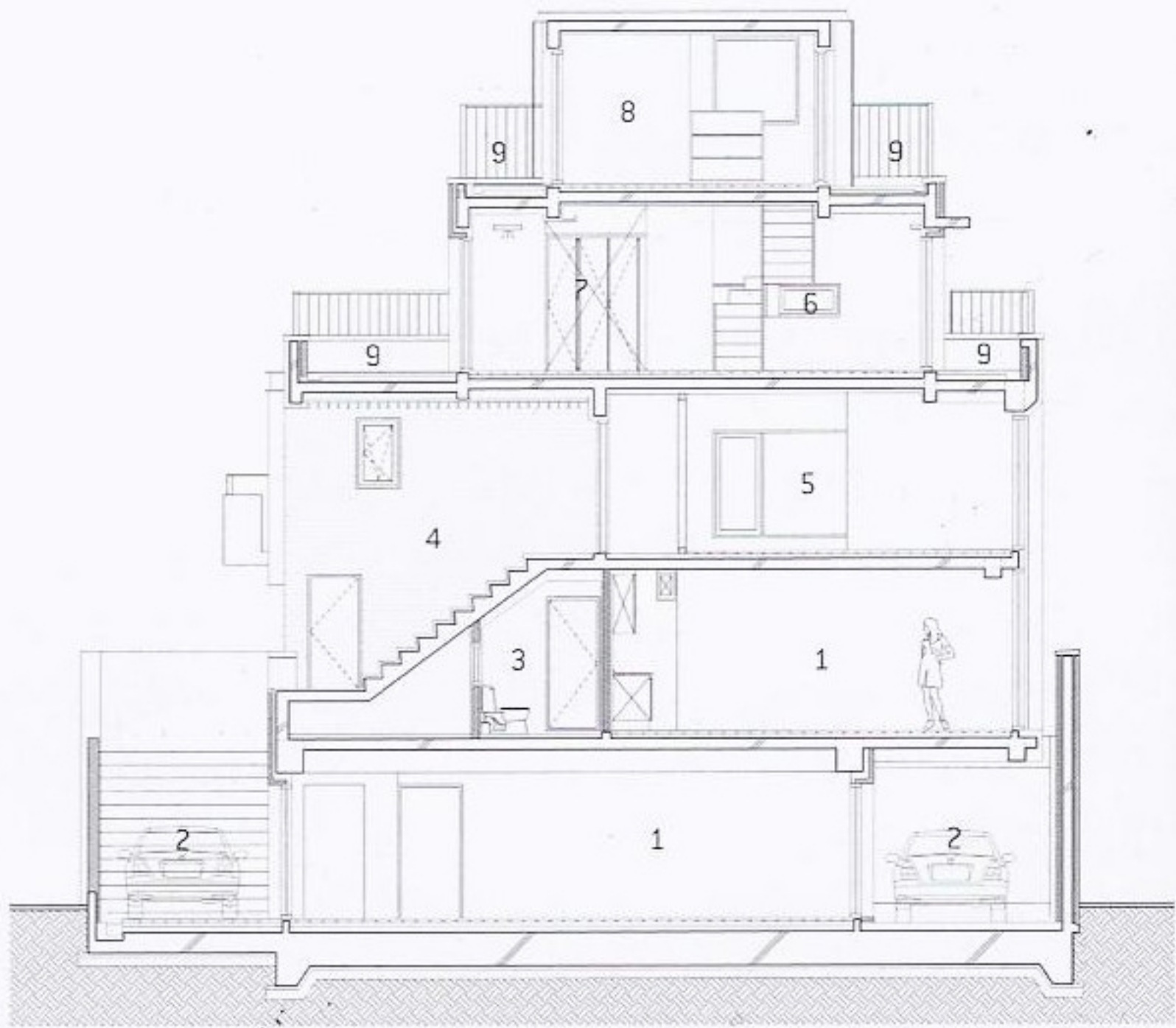


Cross Section



Up to the second level, the bricks are closely stacked in a herringbone pattern, while the third to fifth levels are finished in an ordinary manner of stacking.

- 1. studio
- 2. parking
- 3. bath room
- 4. staircase
- 5. living room
- 6. bedroom
- 7. dressing room
- 8. library
- 9. balc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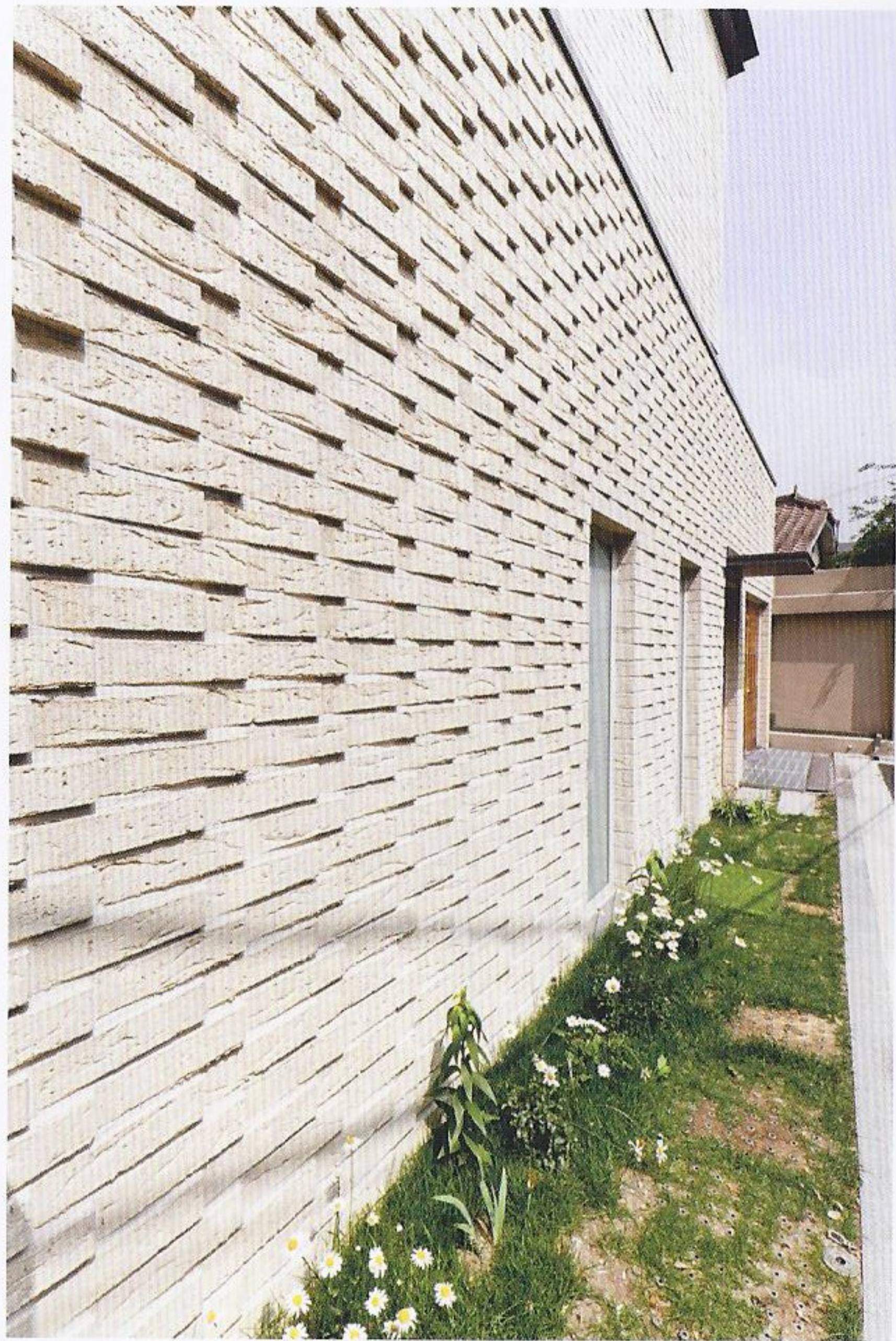


Longitudinal Section

0 2 4m



A vertical path to access to the building uses an external staircase that leads to the second level.



Australian brick of a beige color is used for the cladding.

It was about this time last year that I had a phone call from him. I was struggling with the grim reality of architecture, running my one-man practice ever since my return to Seoul. He read an article in the 'Young Architects' Corner' in SPACE magazine and contacted me to suggest sharing office spaces together: 'Let's share. We could use a bigger meeting room and save on our rent fee.' Our first meeting took place at a basement noodle restaurant in Hannam-dong. Perhaps it was the cruel reality of Korean architecture that tied us closely enough to talk about our problems. For us, architecture is destined to be the very essence of life. This process, however, is accompanied by a number of growing pains; at once, which are cruel but beautiful. Our plan of sharing the office space did not happen; our friendship has, nevertheless, remained intact. He describes his architecture as unconcerned with branding. It means that his architecture begins with its fundamental functionality, as opposed to an architect's deliberated formal language. As the

nine months of the design process reveals, his working methodology is delicate and sophisticated. This is because his architecture always evolves from the user's spatial expectation, rather than from the architect's desire to manipulate space. As an architect, he withholds his ambition and communicates directly with the client. By doing so, he could enjoy the enterprise of space creation. In a way, it is a profession that requires an incredible level of patience and deep understanding of another's life. Tongin-dong Studio is a building that shows brilliance in its process as well as in its result. Time-consuming processes are embedded at every corner of the building, incurring zero spatial waste. The building's volume is thoroughly divided between the maximum FAR (Floor Area Ratio) and functional spaces are effectively distributed by the client's requests. The site-specific topographical context of the Tongin-dong backstreets is vertically elevated by the redistributions of a branching internal path.

The spaces left-over from an old Setback Regulation are now used as a terrace. The view of Inwang Mountain, from the small study room set on the roof-top, is spectacular. We could only but guess at the joy of the client and eager toil of the architect. The open view is augmented by the appropriate divisions placed between the workspace and dwelling space. Although local Building Regulations made it easy to divide the volume, the architect must have struggled for a long time to find optimum design solution for the ambitious requests of the client, who is a sculptor. Due to the noise problem, the sculpture workshop was carefully aligned with the parking garage, creating a problematic but much needed urban space. Instead of one parking space, two parking spaces are provided on both the South and North side. This creates flexible space, in terms of the usage and the number of cars, as well as creating spac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site which may be used for workshop. The house shows the architect's consid-

eration to his client in dealing sensitively with the space. Likewise, Tongin-dong Studio is an elaborate building in every aspect. It overcomes the constraints of the small plot in an urban environment, suggestive of a aspirational platform with an agreeable FAR. To my mind, as an architect of the same generation, his sophisticated finishes and space designs are still lacking in some indefinable quality. It could be a mere matter of personal taste, but is it too much to ask to expect something raw and rough which would actually reveal his architectural agenda? Suddenly this makes me wonder how it would be if it was full of spaces of strange and inconvenient shapes, instead of his characteristically reasonable and functional spaces. If his interpretation was not based on logic — integrating the context of the site to the internal functionality — but centred upon a hetero-morphic debate, may the consequence be a chance to discern and deliberate the more diverse social implications of architecture?

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asonable, Nevertheless

서승모(사무소효자동 소장)
Seo, Seungmo (Director, Samuso Hyojadong
Architects & Associates)

주위를 둘러보자. 건축가는 언제나 열심이다. 젊은 건축가는 더욱 더 열심일 것이다. 새로운 건축을 위해, 건축적 사고와 열정이 담긴 무언가를 위해, 건축가로서의 평판을 위해, 건축주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문해본다. 건축가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현재진행형 하나만으로 자기당착의 최면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이에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 만화에서 교사가 ‘적당(適當: 맞을 적, 마땅 당)’이라는 한자를 쓰면서 학생들에게 말한다. “열심이거나 게으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당’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어요.” 건축, 건축, 건축으로 꽉 차 있던 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든 잊을 수 없는 장면이다.

통의동 스튜디오 하우스는 북쪽에서 일조 사선, 남동쪽에서 도로 사선, 모서리 대지 조건에서 각각 정리를 적용받는 남북 축 장방형이다. 그래서 2층까지는 최대 건폐율을 적용하고, 3~5층은 면적이 점차 줄어들며 남쪽과 북쪽으로 테라스를 갖는다. 진입은 외부에서 2층에 이르는 외부 계단과 1층 현관에서 내부로 통하는 입체 계단, 두 가지 수직 동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1층은 건축주 작업실과 임대 작업실, 2층은 건축주 작업실, 3~5층은 건축주의 주거로 사용한다. 주거 공간은 3층에 거실과 부엌, 4층에 침실, 욕실-드레스룸, 5층에 서재를 배치했다. 주 재료는 호주산 얇은 베이지 색 벽돌로, 2층까지는 생선 비늘처럼 엇갈리게 쌓고 3~5층은 일반적인 벽돌 쌓기로 마감했다. 구도심의 스케일에 맞추어 평면적 요철로 덩어리를 분절했는데, 분절된 건축적 덩어리는 통의동이라는 구도심에 자연스럽게 융화된다. 주 마감재인 벽돌도 튀지 않는다.

건축가 유주현은 이 집을 통해 무리한 사변(思辨)이나 개념을 설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건축의 기본을 논하고자 했다. 사실, 그가 미술과 건축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의 ‘감성적 공간’을 기대했는데, 조금 의외였다. 그가 말하는 ‘기본’은 이렇다. 첫째, 건축주와 대화해 건축의 방향을 정한다. 둘째, 따뜻한 물성을 지닌 벽돌을 다양한 쌓기 방식으로 건물 크기를 분절해 구도심 스케일에 대응한다. 셋째, 개구부는 채광, 환기, 적당한 풍경을 만들기 위해 계획한다. 넷째, 마감을 세심하게 처리한다.

그는 계획 초기부터 특정한 방향성이나 개념 설정 없이 건축주와 대화해 디자인 방향을 정했다. 그의 건축적 프로세스는 그 대화 속에 있다. 더위와 추위, 환기, 채광 등 기능적 요구사항을 중시하고, 언제나 건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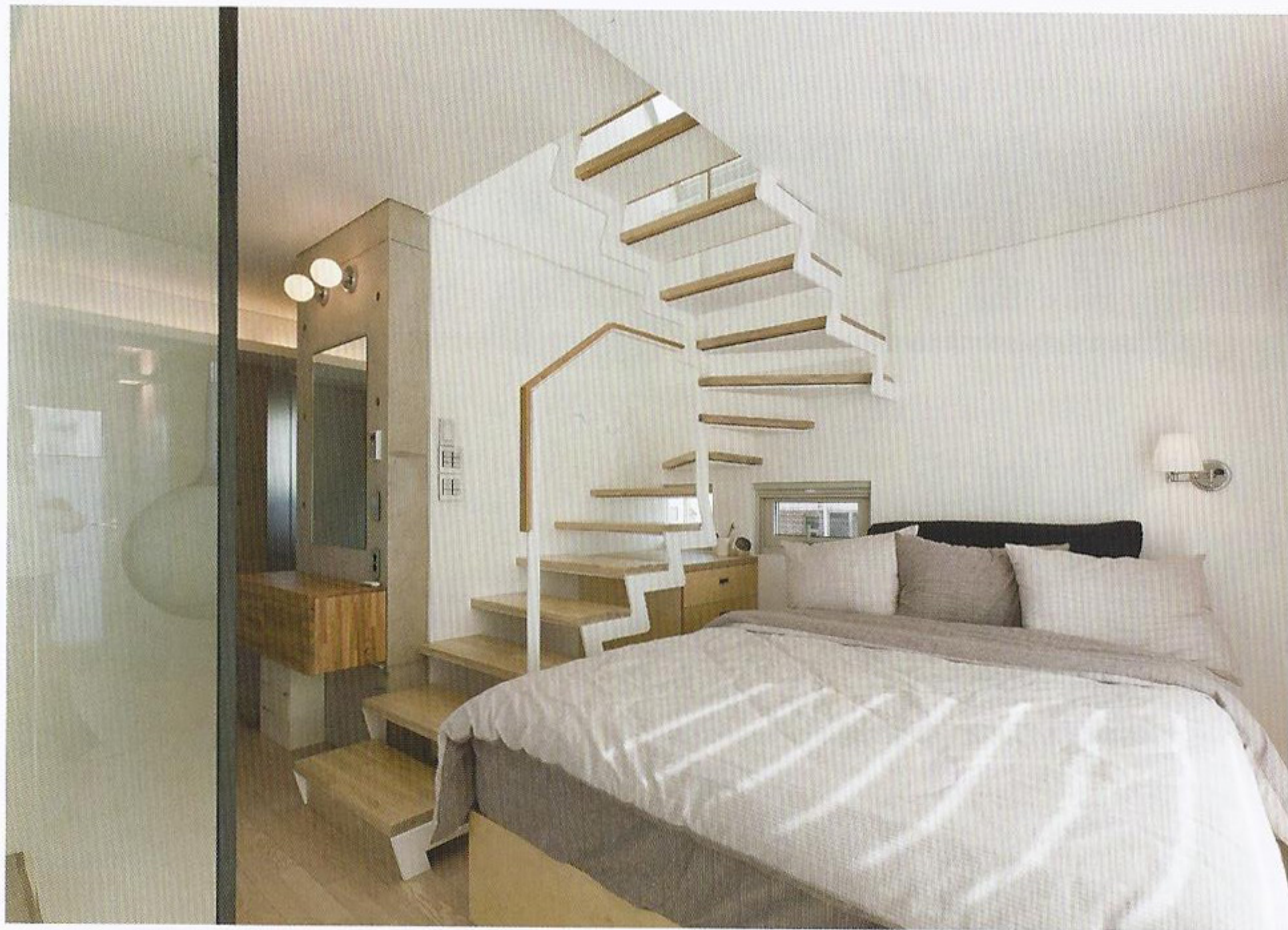
The client's studio on the second floor

기본에 충실하고 싶다며 담담히 말을 잇던 그의 모습은 그의 건축과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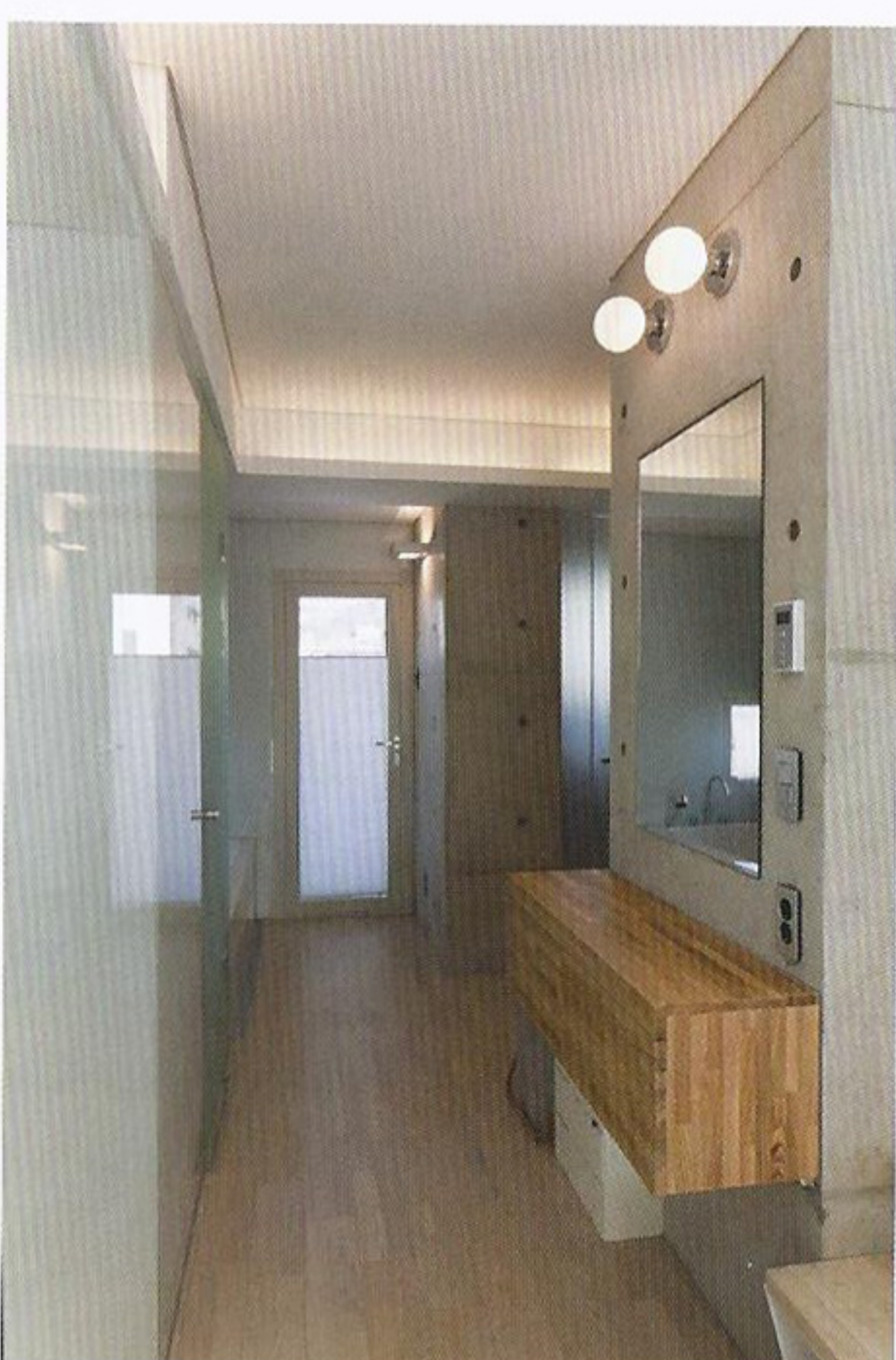
그렇다, 그의 건축은 ‘적당하다.’ 통의동에 건축 법규를 조롱하듯 새로운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이나 삶의 풍경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틀로서 컨텍스트를 만드는 등 새로운 건축적 가능성을 풀어내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한국 건축계에서 사회적·미학적 반향을 일으킨 근린생활시설도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모토 리켄은 “건축가는 건축 법규를 건축 형태로 직역하는 자동 번역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참 쉽지 않은 게 우리 건축 법규의 현실이고 건축주의 의식이다.



A living room on the third floor



A bedroom, a bathroom and a dress-room on the fourth floor



Let's look around. Architects always work hard. Young architects work ever harder in the name of a new architecture; staking his or her reputation, as well as that of the clients', on something that has the rigour of architectural conception and ambition. Nevertheless, it is often questionable whether architects are in fact deluding themselves, believing that they are doing enough – perhaps the result of hypnotic self-contradiction. Thus,, they could be neglecting something important without even realizing.

In my favorite graphic novel, a teacher writes a word in Chinese characters, (meaning sensible, : correct, :fair) and says to his students that “You could be diligent or lazy., but the most difficult thing is to live your life in a “sensible” manner”. I still remember the shock, after reading that page, and it was such that my mind - full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e only - suddenly turned blank.

Tongin-dong studio house is erected on a square-shaped plot, slong a North – South longitude. The site is restricted by the old setback regulations on the north side, by the setback regulation following the width of the road on the southeastern side, and by the rounding of every corner of the land, as according to the road ordinance regulations.

Therefore the building uses the maximum FAR right up to the second level, and gradually reduces floor area from the third to the fifth levels by installing

terraces along the north and southern sides. Access to the building is permitted through two vertical paths; one uses an external staircase that leads to the second level, the other uses a main entrance from the ground level to the floors above. The ground floor is occupied by the clients' workshops and as living space, the second floor is for the client's studio, the third to fifth floors are intended for use as the client's private residence. The residential spaces have been arranged through the planning of a living room and a kitchen on the third floor, a bedroom, a bathroom and a dress-room on the fourth floor, and a study on the fifth floor. Australian brick of a beige color is used for the cladding. Up to the second level, the bricks are closely stacked in a herringbone pattern, while the third to fifth levels are finished in an ordinary manner of stacking. Owing to the scale of the old city, the volume of the building is subdivided by a concavo-convex horizontal pattern. Such sub-divided architectural masses are harmonized with the aged urban fabric of Tongin-dong, set amidst buildings of corresponding size and the corroborative use of common material, brick.

Jooheon Yu, an architect in the Tongin-dong studio, in his gracious attempt to avoid gratuitous philosophising or over-conceptualising, has kept his ego separate from his core notions of an architectural practice. Considering his parallel work in both art

and architecture, it was a surprise to see that he did not reveal or vaunt his own 'spatial sensitivity'. He designates the following a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architecture:

1. Architectural direction as set up through continual conversation with the client.
2. The development of various brick stacking techniques, imbibed with such a warm materiality, in order to sub-divide the building's volume so as to correspond with the context of an old city.
3. Openings should be planned for natural lighting, ventilation, and enabling viewing.

Finishes should be dealt with the utmost sophistication.

From the beginning, he set up his architectural approach through communications with his clients, instead of unheedingly pushing his own concept. Communication is the highest critical tool in his architecture. He explains calmly that he also intends to equally valu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in architecture, such as insulation, ventilation, lighting, and to be loyal to these bases of architecture. Thus, his words resemble his work. Yes, his architecture is 'sensible'. In Tongin dong,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suggest a new architectural possibility, such as a new typology of mixed-use buildings, a new environment for daily

lite, or a proposed context as a completely new framework of communication, ignoring the multifarious existing building regulations. In fact it is hard to come up with any mixed-use buildings that induce social and aesthetic repercussions. As such, Yamamoto Liken once said that 'Architects are not translators who change building code into the form of a building.' Nevertheless, it is still not easy when pressed between architectural regulations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clients.



A study on the fifth floor